

국내 1인 가구 증가의 공간분포 특성에 따른 지역 정책적 함의

강민규 연구원(국토연구원)

-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1970년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급격히 증가(1970년: 3.7% → 2005년: 20%)
 - 평균 5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이며, 향후 총인구의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
 - 1인 가구의 증가는 청년층의 만혼(晩婚), 장년층의 이혼(離婚), 노년층의 독거(獨居) 등 우리나라의 경제·사회적 현상에 기인함
- 1인 가구의 증가 현상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등 공간적 분포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1인 가구 관리정책이 필요
 - 도시지역의 경우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, 전체적인 인구성장 및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1인 가구의 비중 자체는 크게 높아지지 않음
 - 비도시지역의 경우 1인 가구 증가와 인구감소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1인 가구 비중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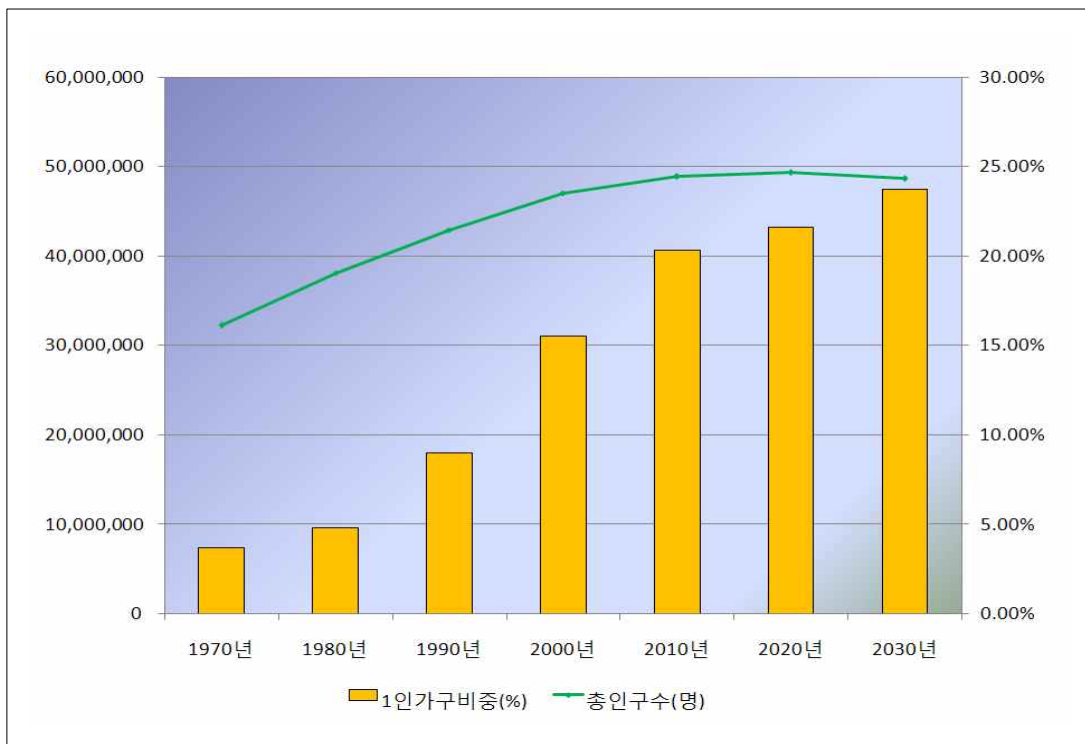
《《 지역별 차이와 메가트렌드를 고려한 종합정책 추진 》》

- 도시지역에서는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, 비도시지역에서는 독거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복지프로그램 강화 추진
- 중앙정부는 일자리 창출, 관련제도 개선,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,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등 구조적 문제해결에 주력하고, 지역에서는 민관협력을 통한 커뮤니티 강화, 에이지 믹스(Age Mix), 실업자 재교육,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등 1인 가구 관리정책 추진

1. 국내 1인 가구 증가와 원인

-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수는 최근 급격한 추세로 증가하고 있음
 - 인구주택총조사(1970년~2005년)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중은 1970년 3.7%에서 2005년 20%로 30여 년 사이에 5배 이상 급증
 - 통계청(2009)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 총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, 1인 가구 수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

[그림 1] 우리나라 총인구 및 1인 가구 변화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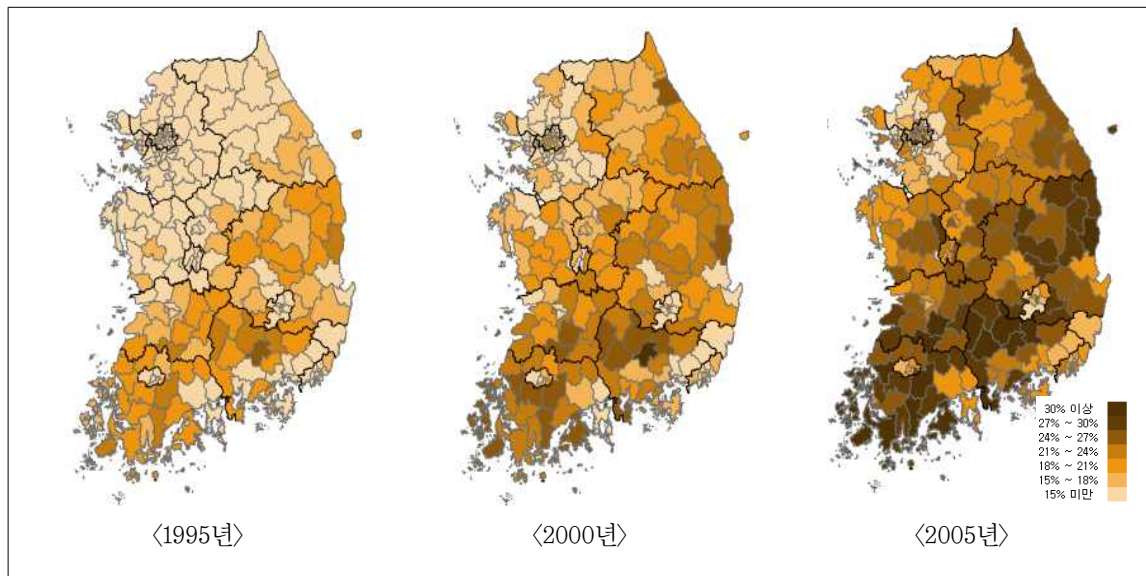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인구총조사 및 추계인구·가구자료.

- 1인 가구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경제·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임
 - 청년층의 만혼(晩婚): 경제위기로 인한 청년 실업,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한 소득 부족, 주택가격 상승 등은 청년층의 초혼 연령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
 - 장년층의 이혼(離婚): 가정생활에 대한 인식 변화, 여성의 사회활동 및 경제력 증가, 자녀 유학에 따른 기러기 가족의 증가 등으로 인한 장년층의 이혼이 급증
 - 노년층의 독거(獨居):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, 전통적 가치관 및 경로사상이 약화되면서 독거노인이 크게 증가

2. 우리나라 1인 가구의 공간분포 특성과 문제점

- 1인 가구의 증가는 도시지역, 비도시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공간적으로 볼 때 지역적 패턴의 큰 차이를 보임
 - 도시지역의 경우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, 전체적인 인구성장 및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1인 가구의 비중 자체는 크게 높아지지 않음
 - 비도시지역의 경우 1인 가구 증가와 인구감소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1인 가구 비중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

[그림 2] 우리나라 1인 가구의 공간분포 변화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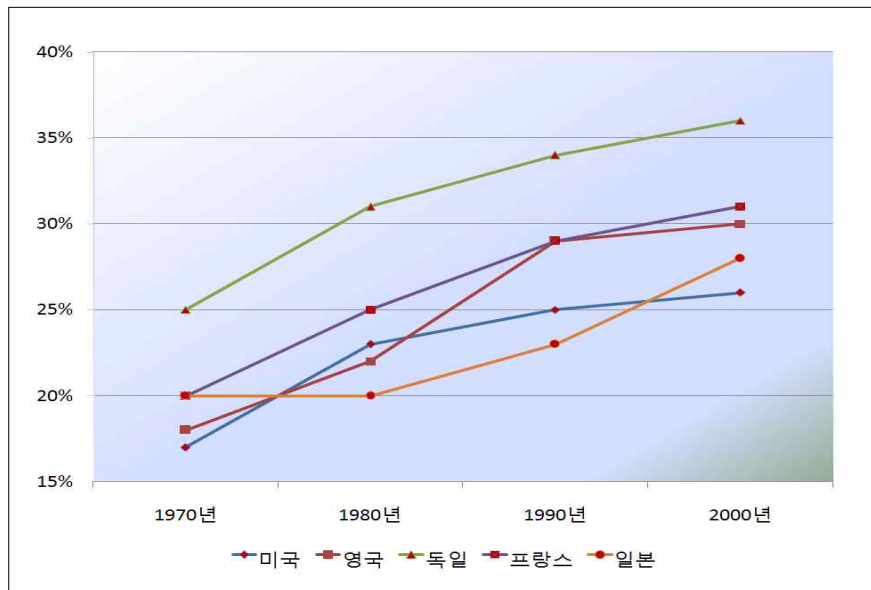
-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1인 가구는 연령층 구성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
 - 대도시 등 도시지역의 1인 가구는 청·장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,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른바 ‘골드 미스·미스터’라 불리는 젊은 고소득층에 해당
 - 농촌지역을 비롯한 비도시지역의 1인 가구 증가는 주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증가에 기인하고 있으며, 이들 중 상당수는 소득부족, 질병,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에 직면
-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와 특성의 차이는 지역격차 심화와 사회적 비용증가를 초래
 -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농촌 지역의 독거 가구 증가는 지역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, 각종 복지비용 증가를 초래하여 비도시지역의 경제 침체를 심화
 - 비도시지역의 상대적 침체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형평의 문제를 야기하고, 복지비용 부담과 관련한 지역갈등을 초래

3. 해외 동향 및 일본의 사례

● 전 세계 1인 가구 증가추세와 주요국의 현황

- 1인 가구수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,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
 - 전 세계의 10가구 중 1가구(11.8%)는 1인 가구로 추산되며, 지난 10년 간 1억 5,350만 가구(1996년)에서 2억 260만 가구(2006년)로 크게 증가¹⁾
 - 산업화 수준이 높고 개인주의적 문화가 확산된 유럽, 북미지역에서는 1970년대부터 1인 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

[그림 3] 세계 주요 선진국의 1인 가구 비중 변화(1970~2000년)



자료: National Statistics of UK; Federal Statistical Office of Germany; European Labour Force Survey; 일본총무성 통계국.

- 1인 가구의 증가는 소득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,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에 비해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음
 - 유럽, 북미 지역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평균 30%에 이르며, 특히 노르웨이(39%), 독일(38%), 벨기에(33%)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²⁾
 - 한·중·일 3국을 제외한 아시아와 남미 지역의 1인 가구 비중은 평균 7%이며,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는 3%로 낮은 수준

1) Euromonitor International(<http://www.euromonitor.com/>)

2) Statistics Norway; Federal Statistical Office of Germany; Economy Directorate General Statistics Belgium

● 일본의 1인 가구 정책과 시사점

- 일본의 1인 가구는 ‘단독세대’라 불리며, 아시아 국가 가운데 그 비중이 가장 높음
 - 단카이(團塊)세대 은퇴와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일본의 1인 가구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혈연, 지연이 와해된 무연사회(無緣社會) 대두
 - 일본의 1인 가구 비중은 평균 29.5%(2005년)³⁾에 이르며, 특히 도쿄(42.5%)를 비롯한 도시지역의 1인 가구 비중이 높음
 - 1인 가구의 증가는 도심지역 주택난 및 고독사(孤獨死)와 같은 사회문제를 초래하였으며, 일본 정부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일종의 재해예방대책으로 추진
- 가구구조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응한 일본 주택시장의 다변화
 -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수요계층의 다변화는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시장 확대로 이어졌으며,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임대·관리 전문기업 등장
 - 1인 가구를 위한 30~50㎡ 규모의 콤팩트 맨션과 욕실, 부엌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셰어형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
 - 주방, 거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대(世代)교류형 주택공급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 사는 에이지 믹스(Age Mix)를 실현하고 노인문제 완화에 기여

[그림 4] 일본 신주쿠의 콤팩트 맨션



[그림 5] 일본 아카사카의 셰어하우스



- 노인 독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지원역량 강화
 - 1인 가구의 상당수(33.3%)가 60세 이상 고령층에 해당하는 일본에서는 고독사 예방센터를 통해 노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, 민간 커뮤니티 조성을 비롯한 지역 밀착형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에 주력

3) 일본 총무성 통계국

4. 지역 정책적 함의

1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1인 가구의 맞춤형 관리정책 필요

- 도시지역의 경우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에 초점
 -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비롯한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, 셰어형주택과 같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주택공급, 소형평형의무비율의 효과적 적용 등을 통하여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택난 및 기반시설 부족에 대비
 - 실업은 1인 가구의 증가뿐 아니라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므로, 실업자에 대한 적극적 일자리 지원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고, 각종 복지비용 및 사회 문제를 해소하는 선순환 구조 창출
- 비도시지역의 경우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복지프로그램 강화
 -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·관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고독사(孤獨死), 자살 등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응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
 - 노년층 재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, 사회적 기업을 통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며, 노인 고용 기업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잠재적 노인문제 대비

2 가구구조 변화의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지역차원의 전략추진

-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정책 모델의 개발 필요
 - 1인 가구의 증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, 고령화, 핵가족화 추세 등 지역 및 국토발전의 패러다임 변화와 맞물려 있는 문제이므로, 장기적 측면에서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지역정책 개발이 필요
 - 중앙정부는 일자리 창출, 관련제도 개선,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,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등 구조적 문제해결에 주력하고, 지역에서는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강화, 에이지 믹스(Age Mix)를 통한 노인문제 완화, 실업자 재교육, 돌봄서비스 제공 등 1인 가구 관리정책을 추진

● 국토연구원 국토계획·지역연구본부 강민규 연구원 (mgkang@krihs.re.kr, 031-380-0271)